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담임목사 임영수



저는 금년 2월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머물면서 그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성민 선교사와 함께 몇 곳의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프놈펜을 떠나던 바로 전날 저녁 그곳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로 듣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나중에 저의 생각을 그들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영적 싸움이 언제나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어떻게 건전한 영성을 형성해 갈 수 있는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그들은 저에게 어떤 만족스러운 해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선교사로서 건전한 영성을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선교 사역지인 캄보디아를 영적 대결의 장으로 보지 말고, 선교사 자신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선교지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똑같이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국민을 사랑하시며, 그 곳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일 매일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선교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선교가 이루어지며, 선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영성이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사람들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 전체의 자연 환경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활동하십니다. 그들이나 우리 모두 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국민, 좀더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은 일정한 어떤 목적을 향해 계속 흐름이 진행되어 갑니다. 생명은 결코 정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에게는 불안과 동요가 있습니다. 죽은 것, 정태적인 것들에는 동요가 없습니다.

둘째, 이 생명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어떤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손상을 입거나 파괴되면 다른 부분에 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무와 숲을 마구 훼손하고, 물과 땅을 오염시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자연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만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형체를 가진 생명체들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 있는(→ 2면으로)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 31호(격월간)

발행일 2001년 7월 1일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 - 4

우편번호 138 - 220

(정신여중 · 고 교내)

tel. 02 - 416 - 5181~2

fax. 02 - 416 - 518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rd-church.or.kr>

차 례

1 ~ 2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 담임목사 임영수

3

섬기는 삶 / 이영남 A집사

4

21세기 교회 여성의 역할과 사명/ 이광자 집사

5 ~ 6

지경을 넓히소서/ 광정식 집사
우리의 자화상과 하나님/ 고경봉 집사
회귀/ 최상용 안수집사

7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를 읽고/ 우진선 집사

8

보성강 자락에서 드리는 소식/
정창석 목사

9

성경퍼즐
신앙클리닉

10 ~ 11

정빈이를 위한 기도/ 박춘대, 김동신 집사
한나를 위한 기도/ 정은수, 한나영 집사
유니를 위한 기도/ 배병권, 최달은 집사

12

교회소식
2001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안내

것들에게 땅은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어린 아이 두 생명이 어머니 품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가듯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땅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땅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생명체들이 죽으면 역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넷째, 이 생명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한 등급은 모든 피조물들의 다양각색의 종류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류, 곤충류, 자연(나무·풀·꽃·채소) 등 이 중에서 최고의 등급은 인간입니다. 생명의 최고의 등급인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 있는 것들과의 유기적 관계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개발하고 보존해 가는 책임을 부여 받았습니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결정적으로 함께 하신 분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공동체인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 이기심으로 자꾸 훼손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현실에서 생명들의 찬양 소리보다는 생명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손상되고 파괴되어 가는 자연계의 생명들은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은 그들 스스로 파괴해 가는 생명 질서의 파괴로 인해 역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낙태로 인한 영아살해, 공기 오염과 썩은 물로 죽어가는 수 백만의 어린 생명들, 폭력, 살인, 기아,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의 신음 소리는 우리의 귓전에 쉼새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인간 역사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매우 신비로우면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 나타나고, 불길이나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령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이것들은 성령으로 나타날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났습니다. 그 공동체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세상의 기존 공동체와는 다른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통일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넘어가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어느 한 개인, 집단의 소유물로 남아 있지 않고, 한 개인, 한 공동체를 넘어서 가십니다. 성령이 지향해 가는 목표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한 개인이 아닌 전 우주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생의 계획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의 계획은 우리집 울타리 안만을 보존하고, 우리 가족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안에서만 현실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아주 작은 창조적이며, 윤리적인, 생명적인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낙심되고 좌절, 무의미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나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 먹고 배설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현재 창조적인 일을 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철인의 말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주하는 교회, 과거 지향적인 교회로서가 아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겸허하게 참여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알 립 니 다

함줄함을 출판부에서 알립니다.

함줄함을 출판부에서는 성도님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시론, 수필, 제언, 시, 감상문, 간증 등의 원고를 기고하시는 분의 사진과 함께

8월 12일(주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김원중 안수집사).

섬기는 삶

이영남 A집사(충성 12구역, 주방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합줄함을 출판부에서 주방부의 섬김의 삶에 대한 원고청탁을 하였을 때 당황하며 주저할 수 밖에 없었으나, 주님은 별것 아닌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이 글을 쓰려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남을 섬기는 본을 보이셨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빌 2:6~). 저는 물질, 지혜, 힘, 시간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드리며 섬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방부에서 봉사하게 된 것은 예배 처소가 YMCA에서 정신여고로 옮겨졌을 때 새벽 주방봉사자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당시 제가 상담부원이었으므로 가끔 주일 새벽에 주방 봉사를 하게 되었고, 매주 새벽부터 주방에서 봉사하시던 이승애 권사님이 1998년 8월 말경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후 제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매주 새벽 주방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어둠을 가르고 달려가 무, 양파, 파, 김치와 단무지 썰는 일 등인데 파를 썰 때는 초상집에 온 것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저의 약한 눈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 드렸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눈이 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해 40일 작정기도가 끝 날 무렵인 12월 28일 새벽에 교회로 가던 중 강남대로 건널목에서 제 차가 사람을 치어서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순간 실수가 귀중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 좌절감과 놀람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약 1개월간 주방 봉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보상과 판결은 남편의 도움으로 잘 해결되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새벽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운전기사와 대화하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보를 몇 장씩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 할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에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힌두교인이 간 맥스웰을 두려워 한 것처럼.

거룩한 안식일에 새벽 5시부터 새벽봉사자가 함께 기도로 시작하여 2500여명의 성도들이 잡수실 국수의 기본재료 준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차를 제공하시는 봉사부 남자 집사님들, 해당 구역식구들이 환한 얼굴로 “수고하십니다.” 또는 “할렐루야” 라고 인사하며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더욱 은혜가 되고 주방 봉사의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부부가 봉사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부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잠 15장 13절).

저의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을 만나서 저런 모습으로 봉사할 것을 그려보며 그 날을 고대합니다.

욕심이 많아 일곱 귀신이나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은 주방부장을 맡으셨던 권사님들, 그간 여러해 봉사하셨던 봉사자들, 담당구역 식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즐길 것을 찾지 않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학생을 낳는 어부가 되어 캠퍼스 지경을 넓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서 도와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공다혁이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드립니다. 아멘.



21세기 교회 여성의 역할과 사명

이광자 집사(회락 2구역)



세상은 매우 많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새 천년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로서 다원주의 사회가 도래하며, 여성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여성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어떠한지 하는가를 신중하게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매우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입니다. 기존의 도덕과 윤리가 소멸되어가고 개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말씀 안에서 21세기를 선도하는 든든한 매개체로서 우리 생활 속에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고 확산함으로써 기독교적인 규범과 가치관을 새롭게 확립하여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회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3F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성(Feminity), 감성(Feeling), 상상력(Fiction)의 특성이 확연히 나타나고, 또 이러한 추세는 정보화·과학화·세계화로 대표되는 지구촌 시대에 보편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유연함이 더욱 필요해 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 지위와 존재 양식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여성들의 대부분이 21세기가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라고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이 자녀 입시와 남편 출세를 위한 기도와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만이 자신의 역할로 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은 삼종지도라는 유교문화에 길들여져 왔음으로 사회나 교회의 가부장적 권위의식이나 남편과 자녀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화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교회 여성들이 변해야 합니다. 교회 여성들은 이제 이러한 장벽을 뛰어 넘어 자신의 신앙과 인격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여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자율성과 바른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구이며,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행에 옮기면서 이행하고 사는가 엄밀하게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특히 내일을 예측할 수 없

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감싸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세대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깊은 인격적 성숙의 결여, 내면세계의 황량함이며 이에 그들은 엄청난 영적 갈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문조사 기관들의 통계에 의하면 오늘의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갈구가 강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특히 기성인들이 신세대들을 사랑과 신뢰로 대하게 되면,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들이 나아갈 삶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성인들은 신세대인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그들이 나아갈 삶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비전을 받을만한 귀한 존재임을 또한 인식시켜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교회 여성들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인 그들과 따뜻한 가슴으로 교감하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존중, 인정과 이해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 나라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여성이 보호 받는 여성으로서보다는 남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변신해야만 하며, 여성도 삶의 주체로서 이 사회의 한 축을 스스로 떠맡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여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수고의 과정이 바로 21세기 여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히브리서 11장 6절).

지경을 넓히소서

곽정식 집사(사랑 1구역)



나름대로는 신의 존재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도, 신앙을 자기편의주의적,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던 제가 주님과 한 걸음 가까워진 것은, 주님의 뜻에 의해 유럽의 한 호수도시에서 3년을 살면서였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최집사 부부와 김집사가 틈날 때마다 그 도시의 한인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해 왔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소 말도 많고 남의 사생활 보장도 잘 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아 오던 터라, 교회와는 가급적 멀리하고 대신 성경을 집에서 열심히 읽으리라 생각했기에 최집사의 권유는 항상 미소로 거리를 두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거절하여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꼭 차 있던 저에게 '이번에 3회에 걸친 성령부흥회가 있으니 한 번 나와 달라'고 또 다시 권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빠지고 둘째 날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에 앉아 예배의 시작에 임하는 제 마음은 '지루한 두 시간을 예의로 보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날 언제 돈을 버나, 언제 출세하나 궁금해서 절박할 때 찾은 하나님에게는 온갖 계산과 실속을 다 따지고 있구나라는 실없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첫마디는 '여러분의 '여'자나 '오늘'의 '오'자도 아닌 '무당'의 '무'자 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인즉 무당을 찾아가는 심정이 교회에 오는 기독교인의 신앙심보다 절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귀를 의심했지만 사실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등의 화려하고 명백한 영적 체험을 기대하고 있는 저에게 그 정도는 우연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몇 십분이 지날 즈음 저는 지루함을 느꼈고, 지루함을 느낄 때면 언제나 제 고향 김제의 넓고 푸른 논을 머릿속에 넣고 정신적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창 김제의 초여름의 논 풍경을 그리던 제 귀에 목사님이 김제라는 지명을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예로 든 지명이 아니라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의 장소로서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유럽의 도시에서 실시되는 부흥회에 하필이면 제 고향 김제가 나오나 이겁니다.

며칠 후 목사님께서 저희 집을 심방을 하시고,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현상이 우연한 사건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묵혀 두었던 질문도 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간추려 간증을 해 달라는 말씀에,

초고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을 쓴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해서 썼군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수정 후 드렸고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 원고가 완성 되었을 때 저는 저를 낮추고 하나님을 세움으로써 제 마음 속의 어느 한 지경이 넓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제 마음 밖에서 너무 많은 것을 찾아 헤맸음을 느꼈습니다.

귀국하여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던 주님의교회에서 영적 지경을 넓히고자, 언제나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더불어 번민과 사색, 기도와 간구 속에 하루 하루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께 성령이 충만하시고 새로운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기 고

우리의 자화상과 하나님

고경봉 집사(희락 12구역)



우리의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뭄이 오래 계속되면서 짜증과 불안이 겹겹이 우리를 에워싸는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때 보다는 형편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우리가 이처럼 더 불안을 느끼며 앞날에 대한 걱정을 더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언가 전보다 더 많이 가지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잃을까봐, 아니면 이미 전보다 더 큰 것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졌을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더 궁핍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가족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를 향해 숨막히게 달려오면서 어느 새 자신의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다. 내가 과연 무엇인지,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를 전혀 돌아다 볼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다. 거기다 급격히 닦쳐온 물질적 위축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향해온 유일한 목표의 뜻대가 흔들리게 되었다. 우리는 크게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그동안 외면했던 정신적 영양분을 섭취하고자 이 사회는 도올이라는 사람에게서 잔뜩 기대를 걸며 그에게서 그런 영양분을 얻어 내려고 애썼다.

이제 차분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속성은 어떤지, 우리의 정체를 알아보자.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졌다.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사랑이든지 간에 말이다. 가지면 채워져야 하는데 더 갈증을 느끼고 더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욕망의 화신이라는데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채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 인간의 불행은 싹튼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한없이 약한 존재다. 그래서 쉽게 열등감을 느낀다. 외모 때문에, 학력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쉽게 원망한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여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날벼락을 내렸어요?"하며 성난 목소리로 반문하는가 하면, 밤새 집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아들을 둔 어머니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쁜 사람들은 살게 하면서, 착한 아들은 왜 데려갑니까?" 하고 슬픔을 억누르며 외쳐댄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을 본 따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해 주셨다.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시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셨다. 부족함을 채워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한편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결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무것이라도 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조그만 것을 소중하게 하시고 큰 것을 허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기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바라보면서 흠족해 하셨던 하나님, 외롭지 않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떤 장애물에도 걸려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다.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것을 후회 없이 좋아하고 계시나요?"

기 고	
회 귀	
최상웅 안수집사(화평 5구역)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반에 있는 아들이 귀국하여 한달 동안 함께 지냈는데, 어제 아침 돌아갈 날이 되어 공항에 데려다 주었다.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니 덩그란히 큰집에 있는 불을 죄다 켜 놓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아마도 쓸쓸함을 잊

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눈치였다. 저녁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아들이 있던 방의 불을 켜니 여기저기에 옷가지와 CD, 책 등이 흩어져 있고 침대 모서리에 앨범이 세권 포개져 있는 것이 보였다. 무심코 제일 위에 있는 앨범을 펴고 침대에 걸터앉아 걸 표지를 넘겨보니 갓 낳았을 때 아들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뒷 쪽까지 훑어보니 태어나서부터 3살될 때까지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갓 낳았을 때의 사진부터 시작하여 다시 찬찬히 넘기다 보니 내 속에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천진난만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 한편으론 말없는 미소가 지어지고, 그 시절 그 아이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 순간 뜨거운 것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을 먹 으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앨범 속 아이의 사진들을 생각하니 흐릿함과 동시에 애뜻함이 잔상으로 남아있었다.

잠을 청하려고 불을 끄고 눈을 감았을 때 문득 두 분의 생각이 떠올랐다.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생각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6.25 직후라 삶에 여유가 없었고 사진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어릴 때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은 손꼽을 정도이다. 사정이 그렇지만 앓았다면 지금은 연로하신 아버지께서도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진에 담으며 표현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으리라는 것에 의심이 없다.

다른 한 분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까지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던 분이시다. 그것도 인간의 자발적인 사랑을 받고 싶으셨기 때문이리라. 떠난 아담을 보면서 예전의 에덴동산을 그리워하시기는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였을 것 같다. 성경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최초의 창조 질서로 회귀하는 역사이다. 즉 창조주와 천진난만하던 아담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다른 생각은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때론 우리를 위해 우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성경 몇 군데를 통해 보여 주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같은 생각들로부터 굳이 결론을 끌어낸다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 또한 감사하며 잘해 드려야겠다는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쉐마'로 표현되는 구약의 핵심이 되는 질(신명기 6장4절)에서 우리에게 그 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랑할 수는 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를 읽고

우진선 집사(자비 2구역)



저는 역기능 가정에서 셋째 딸로 자라왔기 때문에 늘 나의 욕구나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해왔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부부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의 상을 지키고 싶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평소에 표현하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고 또 다시 섭섭함을 마음에 쌓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깊은 이해를 위해 개인의 내적 사고를 남에게 완전히 보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22쪽) 불교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저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수치감을 가진 나를 나 자신이 수용하지 못하기에 그것을 감히 남편에게 두려워서 표현하지 않고 위장된 나만을 늘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자녀의 이야기, 직장 이야기들, 이웃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제가 억압된 감정을 쌓아 두었다가 폭발시키지 않고 좋은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을 모두 건강하게, 지혜롭게 표현할 용기를 주소서.”

얼마 전 구역예배 장소를 알려 주려고 남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나 바빠, 끊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내 머리에 두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그랬을까? 이해하자.” 또 하나는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한 마음이었는데, 제 마음의 솔직한 감정은 후자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날 밤에 저의 부정적 감정을 남편에게 표현했더니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의 직장으로 전화했을 때 저 역시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날 밤 그런 감정을 또 숨기고 “참아야지”하며 또 피곤한 남편을 웃음으로 위장하며 지나갔다면 또 하나의 부정적 감정의 상처를 가슴 속에 묻어야 했겠지요. 사소한 일이었지만 가

슴이 후련하고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편의 잘못만을 확대했을테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부부관계를 조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조명하며 한 걸음 치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흥미를 가지고 듣지 않고는 그를 이해한다는 것이 헛된 일이다”(64쪽)

“가장 깊은 비밀을 나누는 일은 감격적이며 매우 황홀하다. 그대에 수천가지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두려움은 혹시나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34쪽)

“적어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해되어 진다는 느낌 없이 충분한 삶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35쪽)

(폴 투르니에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책은 '좋은 신 앙서적 읽기모임'에서 5월에 읽고 나눈 책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환경운동 십대지침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삼갑시다, 합성세제

사용합시다, 재활용품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 씁시다.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칠일은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삽시다.

팔지 맙시다, 소비광고에 한눈을

구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

십자가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합시다.

보성강 자락에서 드리는 소식

봉정교회 정창석 목사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봉정 교회는 섬진강 자락과 보성강변의 한 귀퉁이 산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마을로 소문난 곳입니다. 전남 곡성에 들어와 섬진강을 따라 죽 내려오다가,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곳, 압록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 다시 보성강을 따라 굽이굽이 한참 올라오면 죽곡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산모퉁이를 몇 개나 돌고 지나서 만나는 아담하게 열려 있는 마을이 바로 봉정(鳳停) 마을입니다.

과거엔 약 400여호가 모여 살던 조(趙)씨 집성촌으로 지금은 100여호 시골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희 교회는 37년 전 세워져, 25명의 장년과 18명의 어린이, 6명의 중고등부 학생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리 베기와 모내기 일로 한창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 요즘은 조금 한가해 졌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 예수를 믿게 된 이인순씨(59세, 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세례식과 함께 온 성도가 은혜 중에 성찬예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도 벌써 7년이 지나고 8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사 오던 그 날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산모퉁이를 돌고 또 돌며 얼마나 깊고도 멀리 들어가는지, 가슴이 덜컥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없는 어린 아이들(초등학교 3년, 4년)과 함께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첫 예배를 몇 명되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저와 우리 가족은 이곳에 흠뻑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시집은 새색시와도 같이 봉정 교회와의 첫사랑에 젖어 날 가는 줄 몰랐습니다. 목회 현장과 신학 수업을 위해 서울과 이곳을 매주 하루해를 걸쳐 오르내리면서도 육신은 피곤하나, 참 살맛나는 세월이었습니다. 대부분 노령의 성도님들이지만 순박하고 깨끗한 영혼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늘과 땅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기가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고도 짝하기만 합니다.

시골장에서 산 양복 안감을 주면서 꼭 전도사님 옷을 지어 입으라고 몇 번이고 보채시던 할머니 고점에 집사님! 머느리 눈총을 받으면서도 손수 먹이를 주어 낳은 토종 달걀을 손수건에 싸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매주일 가지고 오셔서 전도사님이 꼭 드셔야 한다고 손에 들려주시던 안점순 집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자기 자식 일처럼 기뻐하며 땀과 눈물이 배인 때묻은 돈을 쥐어주고 송송 빠진 이를 드러내며 웃으시던 집사님! 객지에 사는 자식들이 부모님 드시라고 사온 통조림이나 고기가 있으면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사택에 먼저 가지고 달려오는 집사님들! 제가 중병에 걸려 누워 있을 때, 산으로 들로 다니며 몸에 좋다는 나물과 불미나리를 캐어 지극 정성으로 공급하시던 김순덕 집사님! 비록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서는 부족한 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나 봅니다. 이제 이들 중 더러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자식 따라 도시에 나가시기도 하였지만, 이들을 통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의 눈물이 고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냥 그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을은 아직도 아득한 우리 조상들의 고질적 사신 우상(邪神偶像), 미신(迷信), 인습과 구습의 틀에 유난히도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300여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버린 마음과 사고의 틀을 저의 힘만으로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머지 않은 장래에 속히 하나님의 소망이 이곳에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와 후원을 주시는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1년 6월 7일,

봉정교회에서 정 창 석 드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성경퍼즐 지번호 정답

■ 가로

1. 하나님의 아들 3. 마태 5. 게세마네
7. 천국열쇠 9. 심판 11. 생활비

■ 세로

2. 나단 4. 의인 6. 아마게돈 8. 구레네
10. 열심당 12. 생명나무 13. 비파

가로열쇠

1. 소돔, 고모라 멸망시 롯의 처는 무엇이 되었습니까?(창 19:26)
3.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몇 족속을 쫓아내셨습니까?(신 7:1)
5. 주께서 포로된 자에게 주신 것은?(이사야 61:1)
9.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는?(창 22:2)
11. 에스겔서에서 인자는 누구입니까?(겔 12:1-2)
12. 인간 언어가 나뉘어진 사건은?(창 11:9)
13. 아굽이 벨엘에서 사용한 것은?(창 28:11)

세로열쇠

2.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난 계기 (창 41:54)
4.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는? (레5:15)
6.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는? (출 12:14-28)
7.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목격한 사람은?
8. 미스바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은?(삼상 7:12)
10. 인류 최초의 순교자(마 23:35)
14.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던 곳 (마26:6-)

■ 정답 보내주시 분

박시만 장로님께서 교회 사무실에서 선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정답을 아시는 분은 8월 3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신 분 가운데 세 분께 예쁜 선물을 드립니다. (문의 416-5181)

신 앙. 클 리 닉

영, 혼, 육에 관한 질문

문 : 평소 궁금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어느 것이 바른 견해인지요?

만약 전자라면 그 내용(뜻 포함)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형제가 질문한 내용은 인간에 대한 2분설과 3분설에 관한 질문인데,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군요. 형제님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어느날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맛있는 부침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와서 이 부침개는 밀가루가 몇%이고 채소가 몇%이고 분말가루가 몇%라고 하면서 분석해 들어간다면, 부침개의 맛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간으로서의 맛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2분설이든 3분설이든 인간은 전인적 존재(wholistic being)입니다. 그러므로 전인적 존재로서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나를 위한 기도



2000년 9월 26일에 태어나 2001년 가정주일에 세례받은 한나를 위한 기도

주여! 저희 아이가 사랑의 품성을 많이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위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 아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저희 아이가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저희 아이도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 주셔서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과 꿈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아이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정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하게 살고, 바르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아이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어느 자리에서나 겸손하게 하시며,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하지 마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의 깊이도 더해가게 하시며, 겸손이 주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아이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작은 일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탐욕을 좇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소중히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아이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조류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주님 앞에 순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 아이가 항상 기뻐하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웃음의 복을 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빠 정은수, 엄마 한나영

유나를 위한 기도



2000년 9월 27일에 태어나 2001년 가정주일에 세례받은 유나를 위한 기도

생명의 신비로 저희를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

주님은 저희 가정에 엄마라는 설렘으로, 아빠라는 아직도 얼떨떨한 낯설음으로 그렇게 시작된 사랑의 빛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아랫니 두 개 언뜻 보일 듯 말 듯 한데 힘없고 연약한 이 아이의 손짓이 저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없애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은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하고

아이의 웃음은 정말이지 마음의 아픔까지도 잠재워 주고 있습니다.

누워 바둥거리는 아이를 고향 안아보지만 그건 저희들이 아기를 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오신 예수님의 영이 저희의 엉클어진 마음을 안아 주는 것임을 압니다. 누워 웅얼거릴 뿐인 아이에게 동화도 읽어주고 이 세상은 이렇단다 말해 주지만,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아아, 이렇게 빛으로 오시어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오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신 저희 가정의 아버지시여!

주님의 거룩한 영이 이 아이를 통해 저희 가정에 들어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정에서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저희 가정된 교회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날,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 가슴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사오니 주님과 이 연합이 자기 고백의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해 하나님과 자기의 기쁨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아이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주의 빛이 드러나게 하소서!

또한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불드시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온전히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베들레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빠 배병권, 엄마 최달은

정빈이를 위한 기도



2001년 2월 12일에 태어나서 2001년 가정주일에 세례받은 정빈을 위한 기도

주여, 드높여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의 뜰, 푸른 초장에서 꽃밭사이로 나비를 쫓아
 마음껏 뛰놀던 어린 양을 문득 불러
 문을 열어 내어 보내시매
 가난한 저희 부부의 품안에
 쿵하고 내려 앉았나이다.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소서
 너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하여

그리고 나의 뜻을 알아서 행하라 하시매.
 온 우주의 시공을 돌고 돌아
 저희 부부의 가슴 안에
 해맑은 웃음으로 안겨 왔습니다.

그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기쁨과 충격
 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과 축복을
 모두 당신의 이름으로 기념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부부는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의 성격차, 어려움 등
 적지 않은 갈등과 다툼의 시절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총명한 누이 유빈이를 보내준데 이어
 의젓한 정빈이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필설로서는 형용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맹세하게 하여주소서.
 우리 정빈이를 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영혼을 지혜롭고 성숙되게 하며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키울 수 있도록
 부모로서 단정하고 겸허한 자세를
 늘 지키게 하소서.

하여

이런 아버지가 되게 하여주소서.
 태산의, 아니 온 지구의 무게를 홀로 등에 지고서도
 이 새끼, 나아가 주님의 모든 자식들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런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북극의 냉막함, 아니 온 우주의 외로움도 껴안고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난 모든 어린 것들에 젖을 먹이고
 당신의 이름을 부여받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기록하여 주소서
 저희 부부 두 사람을 키우기 위해
 오만간장 다 녹이시며
 골육을 다 태우신 부모님의 이름 또한
 주님의 성전에
 꼭 기록해 주시옵소서.

하여, 저는 지금
 주님의 성전 성가대에서
 내 아내의 품에 안긴 정빈이가
 임영수 목사님의 고귀한 손길을 통해
 씻김을 받는 역사를 찬송하고 있나이다.

주여, 그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저희 부부 이 아름다운 세상 일 다 마치고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너희들 정말 세상 잘 살고 왔노라고
 주님의 환한 미소로 기쁨부어 받게 하여주소서.

아빠 박춘대, 엄마 김동신

1. 교구의 날 행사가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사랑교구 - 6월 6일(수) 오전 11시, 서울대 교수회관 앞 잔디밭

희락교구 - 6월 6일(수) 오전 10시, 서울여대 운동장

온유교구 - 6월 6일(수) 오전 10시, 올림픽공원

2. 창립13주년 축하음악회가 6월 20일에 시온성가대 주관으로 대예배실에서 열렸습니다.

3.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가 6월 24일 오후 3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장 로: 이병식, 최창섭, 박시만

안수집사: 임현표, 조일승, 김영중A,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A, 김대현, 박인호, 한득현, 장일형,

김창안,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권 사: 이금선, 최명숙, 배홍자, 최윤정, 김지자, 한은수,

이희숙A, 김귀옥, 이정화, 김홍도, 이경희B, 손경숙,

김성애, 우 숙, 한규연, 전혜영, 우일강, 이지연A,

손천숙A, 신재숙

4. 부족한 예배 및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9일 정기당회에서 아래와 같이 증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증축내용: 수련관에 3개층을 증석, 강당과 테니스장 사이 지하에 약

600석 규모의 집회실을 신설, 중앙정 원 위에 유리지붕을 설치.

소요기간: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약 8개월 정도.

5. 주님의 교회 여름 교구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제: 선교와 봉사(디아코니아)

일시: 2001. 8. 6 ~ 7(월, 화)

오전 9시 ~ 오후 7시: 사랑, 희락, 화평교구

2001. 8. 9 ~ 10(목, 금)

오전 9시 ~ 오후 9시: 자비, 온유, 충성교구

장소: 주님의교회

6. 청년부가 2001년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캄보디아로 선교활동을 떠납니다.

프놈펜을 중심으로 여러 곳을 방문하여 지역 선교에 도움이 될만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캄보디아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잘 전하도록 청년들이 그 기간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잘 하도록, 캄보디아와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안내(날짜순)

부서	일정	장소	교육주제 및 활동내용
청년부	7월 13일(금) ~ 23일(월)	캄보디아	단기선교 및 봉사
영아부	7월 15일(주일) ~ 16일(월)	교회/노량진 수양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 사이좋은 친구들
유아부	7월 15일(주일) ~ 16일(월)	교회/노량진 수양관	
유치부	7월 18일(월) ~ 17일(화)	노량진 수양관	
초등부	7월 24일(화) ~ 26일(목)	양평 플라자 관광농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지체장애우와의 사귄
고등부	7월 26일(목) ~ 28일(토)	양평 플라자 관광농원	Youth Leadership Camp: 노숙자를 위한 봉사 및 장애우와의 사귄
소년부	7월 29일(주일) ~ 31일(화)	양평 플라자 관광농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지체장애우와의 사귄
유년부	7월 29일(주일) ~ 31일(화)	안보리 수양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시각장애우와의 사귄
중등부	8월 2일(목) ~ 4일(토)	음성 꽃동네	봉사교육 및 꽃동네 사람들을 위한 봉사

◆ 여름수련회 후속 활동안내 ◆

진리대로 살며 봉사하는 여름수련회 후속활동으로 8월 26일(주일) 사랑의 돌림잔치를 엽니다.

격년제로 열리는 돌림잔치의 수익금은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찾아가는 디아코니 현장들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물품들을 손질해보시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나눔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